

1. 그랜드부다페스트 호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The Grand Budapest Hotel)-2014년(100분)

감독: 웨스 앤더슨(Wes Anderson)

출연:

랄프 파인즈(Ralph Fiennes)

틸다 스윈튼(Tilda Swinton)

토니 레볼로리(Tony Revolori)

시얼샤 로넌(Saoirse Ronan)

애드리언 브로디(Adrien Brody)

윌렘 데포(Willem Dafoe)

1)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

“나는 아마 육칠년 전까지는 츠바이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들어봤다 하더라도 아주 막연하게였을 것이다. 우연히 <연민 을 조심하라Beware of Pity>를 사기 전까지는 그랬다. 나는 이 첫 번째 책을 아주 사랑했다. 즉각적으로 전에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갑자기 그것들은 책 속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나는 또한 최근에 처음으로 발간된 <우체국 소녀The Post Office Girl>를 읽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이 책들에서 가져온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2) 두 번 만든 영화

“나는 그가 애니메이션 <판타스틱 Mr. 폭스Fantastic Mr. Fox>에서 했던 것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의 애니메이션 버전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영화전체의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버전이었다. 그는 모든 인물들을 표현했다. 그는 그것을 애니매틱(animatics)이라 불렀다.”



3) 생략된 아가사

영화가 끝날 무렵 젊은 작가는 구스타브와의 연결 때문에 그랜드 부다페스트를 지키는지 노년의 제로에게 묻는다. 제로는 “아니오, 그녀를 위해서요.”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물론 아가사이다. 영화에서 아가사의 중요성은 프러시안 독감에 아가사와 어린 아들을 잃게 된 것을 요약하는 이야기를 마칠 때 상기된다.



4)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

공공연한 양성애자 구스타브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힌 동성애자를 상징하고, 가족이 마을에서 몰살당한 제로는 홀로코스트 동안 박해당한 소수인종을 대표하고, 유태인 변호사 코박스는 살해자 조플링에게 추적당하고 살해된다. ZZ요원 드미트리는 SS요원을 참조한다. 그는 나치가 예술품에 대해 그랬듯이 주로 그림을 추적하고 훔친다.



5) 공포시대

제로는 가족이 제로이고 조플링은 코박스의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진다. 어둠은 도처에 있다. 구스타브가 아가사에게 몇송이 꽃을 준다. 제로는 그의 내레이션에서 아기 관의 크기 상자에 넣은 꽃을 그녀에게 주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가사와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예고하는 것이다.



6) 구스타브, 작가, 츠바이크, 웨스 앤더슨

“솔직히 말해, 내 생각에 구스타브의 세상은 그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사라졌네. 그는 그저 자신의 환상 속에서 멋지게 산거지!”



7) 아트버스터(artbuster)

예술성을 갖춘 블록버스터 영화: 예술(art)+블록버스터(Blockbuster)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소품, 캐릭터, 시대, 역사 등을 포함하는 아름다운 상상 속의 세계를 창조하여, 그 스케일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으로 인정되어 ‘아트버스터’로 불린다.

2. 스모크

1) <스모크>(1995) 감독과 배우

감독: 웨인 왕(Wayne Wang)

원작: 폴 오스터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편: <블루 인 더 페이스(Blue in the Face)>(1995)

주연

하비 케이틀(Harvey Keitel) - 오기 렌(Auggie Wren)

윌리엄 허트(William Hurt) - 폴 벤자민(Paul Benjamin)포레스트 휘테이커(Forest Whitaker) - 사이러스 콜(Cyrus Cole)

스토카드 채닝(Stockard Channing) - 루비(Ruby)
해롤드 페리누 주니어(Harold Perrineau Jr) - 라시드 콜(Rashid Cole)
미셸 허스트(Michelle Hurst) - 엠 이주머니(Aunt Em)
제러드 해리스(Jared Harris) - 지미 로즈(Jimmy Rose)
빅터 아고(Victor Argo) - 비니(Vinnie)
애슐리 저드(Ashley Judd) - 펠리시티(Felicity)

2) 영화 테마

- 스모크(smoke)?: “다 타버린 담배에서 남은 재의 무게가 얼마인가?”(무정형의 연기 무게를 측정하는 일)
- 담배가게(뉴욕의 브루크린)?
- 만일(if)과 선택
- 사진과 일상의 반복, 그리고 특이성
 - * 아침 8시에 매일 찍은 사진
 - * “You will never get it, if you don't slow down.”
(천천히 넘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얻을 수 없지.)
 - * “똑같아 보이지만 한 장 한 장 다 다르지.”
- 평범한 삶과 행복
- 카메라의 움직임(좌우, 다중)

3) 스모크의 OST

탐 웨이츠(Tom Waits): ‘당신이 꿈꿀 땐 순수하지Innocent When You Dream’은 은은히 번지는 담배연기처럼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노랫말로 외로운 자들의 상처를 감싸며 위로한다.

“The bats are in the belfry and the dew is on the moor.
Where are the arms that held me and pledged her love before.
It's memories that I'm stealing.
But you're innocent when you dream, when you dream.”
종탑 안엔 박쥐들이 있고, 황무지엔 이슬이 맺혀있네.
사랑을 맹세하며 나를 포옹했던 팔들은 다 어디로 갔나?
이제 내가 훔치는 건 기억들뿐.
하지만 당신이 꿈꿀 땐, 당신이 꿈꿀 때는 순수했지.

3. 와호장룡

1) 와호장룡과 이안 감독

- 대만 작가 왕도려(王度廬)의 소설 <와호장룡>(국내 번역: <청강만리>(고려원))
‘우슈’(무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영웅적인 행동을 집대성한 새로운 형태의 무술): 이모백

- '센스 앤 센서빌리티'(Sense and Sensibility:이성과 감정)(1995) -<오만과 편견>의 제인 오스틴 원작 : 신분과 제도를 뛰어넘은 사랑, 자유: 용(옥교룡)

- 무협의 특징: 선과 악, 정파와 사파의 구분

2) 와룡장호(臥龍藏虎)와 와호장룡(臥虎藏龍)

중국의 옛 시(詩) 구절에는 '와룡장호(臥龍藏虎)'라는 말이 있다..... 모두 도약을 위한 웅크림으로 상징한다.

그러나 글자의 위치를 '와호장룡(臥虎藏龍)'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 '와호(臥虎)'는 배가 불러 누워 있는 호랑이를 나타내는 말로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이다.

- 또 '장룡(藏龍)', 즉 숲에 몸을 숨기는 겁 많은 용은 더 이상 용이 아니다.

- 이런 모습의 용과 호랑이로부터는 소심함과 비겁함이 느껴질 뿐이다.

<와호장룡>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운명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고, 끝내는 불행에 빠진다. 소명을 거부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신화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신화>에서 인용)

3) 영화의 주제

- 정적인 사랑(이모백과 수련)과 열정적인 사랑(소호와 소룡)

- 정파(이모백)와 사파(푸른 여우)

- 강함(용, 호)과 부드러움(이모백)

- 덧없음(이모백)과 열망(용)

- 규율과 자유/ 정(靜)과 동(動)

4) 생각해보기

-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손을 꼭 움켜쥐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 손을 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 이모백

- 소룡의 죽음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의 깨달음 때문이 아닌가.

- 청명검이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이다.

5) 영화의 장면과 중국 창암산 교루전(蒼庵山 橋樓殿)



4.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1) 감독과 배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Meu Pé de Laranja Lima, 2012)

감독: 마르코스 베른슈타인(Marcos Bernstein)

배우: 제제(후아오 기에메 아빌라), 뽀르뚜까(호세 드 아브레우)

원작: 조제 마우루 지 바스콘셀로스

브라질 영화(시간: 97분)

2) 등장인물

- 제제(Zezé): 주인공. 제제는 애칭이며 본명은 조제(José). 작가 조제 마우루 지 바스콘셀로스 자신을 반영한 인물이다. 5살인데 생각과 행동은 여러가지 의미로 상당히 조숙하다.

- 밍기뉴(Minguinho), 슈르르까(Xururuca) 밍기뉴는 평소, 슈르르까는 제제의 기분이 좋을 때 쓰는 애칭이다. 밍기뉴는 멋진 백마가 된다. 라임오렌지나무로 제제는 수시로 이 나무와 대화를 나눈다.

- 뽀르뚜가(Portuga)

본명은 마누엘 발라다리스(Manuel Valadares). 포르투갈 사람.

- 토토까(안토니오): 제제의 형. 초반에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등 철이 든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제제를 챙겨줄 때도 꽤 많기는 하지만 제제를 부추겨서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와 싸움을 붙이고 잔디라가 제제를 때릴 때 같이 때린다.

- 루이스: 제제의 동생. 집안의 막내로 제제와 달리 얌전한 성격이기 때문에 귀여움을 받는 듯하다. 제제를 잘 따르며 제제가 유일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려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리아처럼 루이스의 실제 인물인 작가의 동생도 요절했다고 한다.

- 망가라치바

기차. 뽀르뚜가는 망가라치바에 자신의 자동차가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한다.

3)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대사

가. “난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야 기분 상하는 일도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냐"는 제제의 물음에 토토까 형이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제의 아빠는 실업자. 제제는 아빠를 위해 구두닦이를 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다.

나. “어른이 된다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돼!”

토토까 형이 제제에게 길 건너는 법을 알려주면서 한 말이다. "자 이제 혼자 해봐"라는 말과 함께. 꼬마 제제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길을 혼자 건너는 것도 어른이 되기 위해 내디뎌야 할 한 발짝 도전이다.

다. “여기 내 가슴 속 새장이 텅 빈 것 같아.”

제제는 자신의 가슴에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이 보내준 새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제제는 나무 '밍기뉴'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가슴 속 새를 하느님께 돌려보내겠다고 말한다.

새를 보내고는 "울면 흥측하겠지?"라고 말하며 "내 가슴 속 새장이 텅 빈 것 같다"고 고백한다.

라. “전 아빠를 죽일 거예요.”

아빠에게 맞으며 학대를 받아온 제제가 뽀르뚜까 아저씨에게 한 말이다.

"제 생각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그만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마. "아픔이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

도로확장 공사 때문에 밍기뉴를 베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제는 충격에 빠진다.

제제는 "이제야 아픔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며 "아픔이란 매를 맞아서 생기는 것도,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할 때 겪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한다.

제제에게 아픔이란 가슴 전체가 모두 아린,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가

슴 속에 간직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

바. “서로 잊지 않고 가슴 속에 깊이 품고 있으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단다.”

상심에 빠진 제제에게 뽀르뚜가 아저씨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제제가 평생 뽀르뚜가 아저씨를 가슴에 품고 기억하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누구나 때가 되면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살아가는 도중의 일이란다. 혹시나 라임 오렌지 나무가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해도 아주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겠니?

제제 기운을 내림, 누구라도 서로 잊지 않고 가슴 속에 깊이 품고 있으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단다."

사. “사랑하는 뽀르뚜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뽀르뚜가를 잃고 48세의 성숙한 어른이 된 제제가 한 독백이다.

"그 시절 우리들만의 그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먼 옛날 한 바보 왕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